데스크 시각



채희종 사회부장 겸 편집부국장

"약자의 배를 소리 없이 가르는 이 은밀하고 비열한 돈의 전투에서는 더 이상의 관계도, 혈연도, 우정도 없 었다. 거기에는 오직 먹히지 않기 위해 먹어야 하는 약 육강식의 잔혹한 법칙만이 존재했다. … 돈이란 인생 그 자체요! 돈을 없애 보시오. 이 세상에는 더 이상 아 무것도 없을 거요"에밀 졸라가 1891년 발표한 소설 '돈'에 나오는 한 장면이다.

이 소설은 프랑스 금융가와 증권시장을 중심으로, 돈의 욕망에 휩싸인 각계각층의 군상을 그려낸 작품이 다. 정확히 130년 전에 발간됐지만 주제나 이야기의 전 개에 있어 시대적 거리감을 전혀 느낄 수 없는 작품이 다. 주식 투자에 빠져 딸의 곤경을 외면한 부부, 주가 폭락으로 수많은 개인 투자자를 파산시킨 금용인, 주 식 정보를 얻기 위해 몸을 파는 귀족부인 등이 주요 인 물로 등장한다. 공교롭게도 이 인물들은 최근 세계적 인 흥행에 성공한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게임' 참가 자들의 배역과 너무도 닮아 있다.

'오징어게임'과 에밀 졸라의 '돈'

'오징어게임'은 은행과 사채 빚에 쫓기며 인생 막장 에 다다른 456명의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상금 456억 원을 쟁취하기 위해 벌이는 데스게임을 다룬 드라마이 다. 여기에는 자동차회사에서 퇴출당한 후 치킨집을 하다가 망해 수억 원의 빚을 지면서 어머니 치료 기회

1만 원으로도 행복할 수 있을까

마저 놓친 '기훈' (이정재)과 잘나가던 서울대 출신 금 융인이지만 주식·선물투자 실패로 수십억 원의 빚과 횡령으로 쫓기는 '상우' (박해수), 살기 위해 힘 있는 조폭에게 몸을 팔기도 하는 여성 등 456억 원을 쫓아 죽음의 게임을 벌이는 다양한 '루저'들의 모습이 나온 다. 이야기의 배경과 시기만 다를 뿐, 일확천금을 꿈꾸 는 소설 속 등장인물들이 오징어게임으로 대거 이동한 느낌마저 들 정도이다.

'오징어게임'은 돈 때문에 사람들이 죽고, 심지어 살 인까지 저질러야 한다는 점에서 어른들의 마지막 남은 동심마저 파괴한다. 보는 내내 심기가 편하지는 않았 지만 사람에 대한 믿음과 배려심을 잊지 않은 가장 인 간적인 '기훈'이 최종 승자가 되는 게 그나마 위안이 됐 달까. 드라마는 데스게임이 진행되는 내내 참가자 한 명당 목숨 값 1억 원, 총 456억 원이 들어 있는 초대형 투명 돼지저금통을 시도 때도 없이 클로즈업한다. 여 기에 돼지저금통 액수의 456만 분의 1인 만 원짜리 지 폐 한 장이 네 차례 정도 클로즈업 된다.

456억 원이라는 거금을 거머쥔 기훈은 전혀 행복해 하지 않는다. 기훈은 자신의 우승이 다른 사람들의 희 생과 도움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에 참가자들의 목숨 값인 상금을 쓰지 못하는 것이다. 제작진의 의도인지 꿈보다 해몽인지 모르겠지만 기훈은 456억 원을 갖는 순간보다 만 원을 쓸 때 더 행복한 표정을 짓는 듯했

실제로도 만 원짜리 한 장을 훨씬 가치 있게 썼다. 게 임에 참가하기 전 일이다. 기훈은 이혼 후 떨어져 사는 딸의 생일을 챙기려 하지만 손에는 만 원짜리 한 장 밖 에 없다. 그럴싸한 선물을 장만하기에는 턱 없이 모자 란 1만 원을 천 원짜리 지폐로 바꿔 인형뽑기 기계에서 뽑은 인형으로 선물을 마련하고, 남은 돈으로 딸과 떡 볶이를 먹으며 행복한 시간을 보낸다. 이후 오징어게임 참가자 모집책과 딱지치기 게임을 통해 번 수십만 원 가운데 1만 원으로 어머니에게 드릴 고등어를 산다.

그렇게 살다가 우연히 게임에 참가하게 되고 우승까 지 한 뒤 상금 456억 원이 들어 있는 카드로 첫 인출을 하면서 1만 원만을 뽑는 장면은 TV화면을 가득 채운 다. 이 돈 1만 원은 후배 어머니 생선가게에서 또다시 고등어 구입 용도로 사용되지만 이때는 후배 어머니가 기훈이 어머니 갖다 드리라며 받지 않는다. 거액을 통 장에 둔 채 한 푼도 쓰지 않는 기훈에게 면담을 요청한 은행장으로부터 기훈은 1만 원을 빌리고, 이 돈은 꽃 파는 노인으로부터 장미를 사는 데 쓰인다.

꽃 파는 노인과 폐지 줍는 할머니

이 드라마가 아무리 1만 원의 가치와 행복을 역설해 도 그게 456억 원의 가치보다 클 수는 없을 것이다. 다 만 수천억 원을 가진 재벌이 형제가 가진 또 다른 수천 억 원을 뺏기 위해 소송하는 일이 흔한 것을 보면, 행복 의 조건으로서의 돈은 액수보다는 '어떻게 쓰느냐'에 달려 있다는 생각이 든다.

'1만 원을 어떻게 쓰면 행복할까'하는 생각으로 몇 날 며칠을 고민해 봤다. 그러다 일주일 전 드디어 1만 원으로 행복을 살 수 있는 방법을 발견했다. 휴일 산책 도중에 만난 폐지 줍는 할머니의 손수레에 1만 원을 놓 아 드린 것이다. 할머니는 처음엔 괜찮다며 거절하셨 지만 이내 고맙다며 받으셨다.

다행히 그 할머니는 받으셨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어느 여름날, 한 할머니는 "나는 자식이 있어 괜찮으니 혼자 사는 더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세요"라 고 했다. 그 말을 듣고 순간 울컥했던 기억이 있다. 이 때 이후로는 만 원짜리 한 장을 누군가에게 주는 것도 상당한 용기가 필요할 정도로 망설여졌다. 여러분은 1 만 원으로 어떤 행복을 살 수 있겠는지, 좋은 방법이 있 다면 알려주시기를.

社 說

국민의힘 후보 첫 토론회 알맹이가 없었다

국민의힘이 어제 열린 광주·전북·전남 도특기할 만한 게 없었다. 새만금을 국제 합동토론회를 시작으로 본경선 일정에 돌 입했다. 최종 대선 후보는 다음 달 5일 결 정된다. 네 명의 예비후보들은 저마다 더 불어민주당 대선후보로 선출된 이재명 경 기지사를 꺾을 적임자는 자신이라며 지지 를 호소하고 있다. 특히 이들은 어제 열린 첫 TV 토론회에서 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공격하면서 자신이 '대항마'라고 주장했 다. 그러나 이날 토론은 별로 알맹이가 없 었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다.

토론에 나선 후보들의 화살은 일제히 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 지사를 향했다. 홍준표 후보는 이 지사가 대장동 비리 사 건의 주범이라고 표현했고 원희룡 후보는 이 지사를 대량살상무기에 빗대기도 했 다. 유승민 후보도 '구속되어야 할 사람이 민주당 집권 여당의 후보가 됐다'고 날을 세웠다. 다만 윤 후보는 이날 토론회에서 는 이 후보를 겨냥한 발언을 따로 내놓지 는 않았다.

호남 지역 발전에 관한 공약이나 정책

투자진흥지구로지정하겠다.(윤) 무안공 항을 김대중공항으로 바꾸겠다.(홍) 호 남과 영남을 아우르는 지역에 미래도시를 건설하겠다.(유) 정책 현안들을 해결하 기 위해는 호남특임장관을 임명해 소통하 겠다.(원)

토론 중 나온 호남 관련 공약은 이 정도 에 그쳤다. 심지어 대부분의 후보들은 민 주당 이재명 후보의 호남 공약을 숙지하 지 못하고 있는 듯했다. 이에 원 후보가 다른 후보들에게 "전부 이재명을 압도할 후보들이라고 하면서 이재명 공약도 안 읽고 오시나"라며 면박을 줄 정도였다.

이처럼 국민의힘과 후보들의 호남에 대 한 정책이 빈약하다면 지난해부터 '서진 정책'을 추진하며 호남에 공을 들여 왔던 '호남 구애'는 결실을 맺기 어려울 것이 다. '정치적 불모지'인 호남으로 외연 확 장을 통해 '도로 영남당' 이라는 당 이미지 를 탈피하고 정권을 교체하고 싶다면 보 다 획기적인 정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응급환자 대도시 이송' 전남이 가장 많았다.

지난해 중증 응급환자를 다른 지역 의 료기관으로 이송한 비율이 가장 높았던 지역은 전남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응 급 상황에서도 전문의가 없어 수술이나 처치를 받지 못한 채 대도시로 병원을 옮 기는 사레가 빈번했다는 것이다. 이는 전 남의 열악한 의료 여건을 여실히 보여 준

국립중앙의료원의 '최근 5년간 중증 응 급환자 전원(轉院) 현황' 자료를 보면, 전국 38개 권역응급의료센터에 내원한 3 대 중증 응급환자(심근경색・뇌졸중・중증 외상) 가운데 2만 6848명이 다른 병원으 로 옮겨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남은 지난해 중증 응급환자 5582명 가운데 9.7%인 541명이 타 지역으로 이송돼 전 국에서 전원율이 가장 높았다.

이송 사유를 보면 수도권과 지방의 의 료 격차가 고스란히 드러난다. 서울 등 수 도권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이송 사유는 병

실 등 시설 부족이 대부분인 반면 지방은 의료진 부족으로 인한 처치 불가가 압도 적이었다. 지난해 전남에서 이송된 환자 541명 중 48.6% (263명)가 응급수술·처 치 불가, 전문 응급의료 필요 등의 사유로 전원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의 절반이 병실 등 시설 부족이 아니라 의료진 부족 으로 응급 상황에도 병원을 옮겨야 했다 는 것이다.

이처럼 전남 지역 응급환자들이 전문의 가 없어 대도시 병원으로 옮겨지다 보니 치료의 골든타임을 놓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전남의 인구 1000명 당 의사 수는 1.7명으로 서울 3.1명, 광주 2.5명 등과 격차가 크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공공의 료 확충과 지역 간 의료 불균형 해소 요구 는 갈수록 커지고 있다. 정부는 전국 시도 가운데 유일하게 의과대학이 없는 전남에 의대를 신설해 의사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다.

은펜칼럼



강대석

장성 입암산성(笠巖上城)을 오르다 보면 갓바위 가 는 길에 '윤진 장군 순의비'가 있다. 윤진(1548~1597) 장군은 임진왜란 때 장성에서 김경수를 맹주로 한 남문 창의에 참여하여 종사로 활약하였으며 이후 왜적이 전 라도로 침입하여 올 것에 대비하여 입암산성의 수축을 건의하고 산성을 정비하여 정유재란 때 산성을 지키다 순절한 무신이다.

1597년 8월 왜적이 남원성을 짓밟고 남으로 내려오 자 윤진은 전라도의 관문인 입암산성을 지키기 위해 백 여 명의 의병을 모았으나 왜적이 눈앞에 들이닥치자 병 사들은 겁에 질려 모두 도망치고 관리들도 피신하기에 바빴다.

윤진의 친구들은 "자네는 성을 쌓으라는 명을 받았 을 뿐, 성을 지키라는 명은 받지 않았는데 왜 피난을 가 지 않는가?"라며 빨리 피신토록 종용했다. 그러자 윤 진은 "조정이 이 성을 쌓을 때는 오늘을 대비하기 위함 인데 신하된 도리로서 어찌 목숨을 위한단 말인가? 이 성은 내가 죽을 땅이요, 오늘은 내가 죽을 날이다"라며

윤진 장군과 강항 선생의 우정

몇 안 되는 의병들과 성을 지키다 중과부적으로 장렬히 순절했다. 윤진의 아내 권씨 부인은 남편이 전사했다 는 말을 듣자 적에게 몸을 더럽힐 수 없다며 패도를 꺼 내 자결하니 적들도 이를 의롭게 여겨 아무도 건드리지 않고 떠났다. 그의 아들 윤운구 역시 당시 17세였으나 아버지를 도와 싸우다 적의 칼에 찔려 절벽 밑으로 떨 어지는 바람에 겨우 목숨은 건졌다. 권씨 부인은 당대 유명한 시인인 권필(1579~1612)의 누님이었다. 권필 은 조카 윤운구와 함께 윤진의 시신을 열흘 만에 수풀 속에서 찾아내어 겨우 장사를 지냈다.

윤진과 영광의 수은 강항(1567~1618)은 친한 벗이 었다. 나이는 열아홉 살 차이였지만 망년교(忘年交) 를 하며 지냈다. 망년교란 나이를 초월하여 벗으로 사 귀는 것이다. 강항은 윤진의 처남인 권필과도 친구였 다. 둘의 만남은 공무로 진원현을 지나던 강항이 인근 마을에 권필이 와있다는 소문을 듣고 빗속에 찾아가면 서 시작되었다. 처음 만난 날 하룻밤을 시주(詩酒)로 세우며 둘은 절친이 되었다.

그리고 몇 년 뒤 정유재란이 일어나자 윤진은 입암산 성을 지키다 순절했고 강항은 남원성 전투에서 군량미 를 운송 중 성이 함락되자 이순신 장군 휘하로 가려다 왜적에게 붙잡혀 일본으로 끌려갔다. 두 사람의 운명 이 정유재란으로 인해 생사가 갈린 것이다.

강항이 3년간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기적적으로 생 환하자 권필은 누구보다 기뻐하며 영광 불갑까지 찾아 가서 위로했다. 강항은 권필에게서 윤진의 순절 소식

을 듣고 그의 아들 윤운구를 문하에 받아들였다. 윤운 구는 강항의 문하에서 7년 동안 숙식을 하며 공부하여 진사시에 합격했다. 강항과 윤운구는 열세 살 차이였 다. 강항은 제자인 윤운구에게 망년교를 권하며 윤진 이 자신을 대한 것처럼 벗으로 대했다. 윤진에게서 받 은 망년교의 정을 그의 아들인 윤운구에게 그대로 베푼 것이다. 대를 잇는 아름다운 우정이었다.

강항은 윤진이 나라를 위해 싸우다 목숨을 바쳤음에 도 공훈을 받지 못함을 딱하게 여겨 윤진의 포상을 건 의하는 청포윤진소(請褒尹鎭訴)를 장성 유림을 대신 해서 조정에 올리고 뒤이어 윤진의 행장(行狀)도 지어 주었다. 행장에서 강항은 "공이 살았을 때에는 나에게 망년교를 하였는데 이제 공의 아들 운구에게 내가 또 망년교를 하고 있으니 선생의 일생을 나만큼 아는 사람 은 없다"라고 했다. 두 사람의 우정의 깊이를 알 수 있 는 대목이다.

권필은 궁류시(宮柳詩)로 유명했다. 광해군의 처남 유희분이 궁궐 내에서 온갖 세도를 부리자 이를 빗대 지은 시가 궁류시다. 결국 권필은 이 시로 광해군의 노 여움을 사서 해남으로 귀양을 가게 되며 귀양길에 동대 문 앞에서 행인들이 동정으로 권하는 술을 모두 받아 마시고 술병이 나서 새벽에 숨을 거두고 말았다. 아까 운 천재 시인의 최후였다.

가을이 깊어가고 있다. 잠시 시간을 내서 주변의 문 화유적을 찾아 옛 선비들의 발자취를 더듬어 보는 것도 이 가을을 무심찮게 보내는 하나의 방법일 것이다.

無等鼓 🕡

치킨게임

1950년대 미국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자 동차를 마주 보고 달리는 '치킨 게임'이 유 행했었다. 두 대의 차량이 서로 마주 보며 돌진하다가 충돌 직전 핸들을 꺾어 방향을 트는 사람이 지는 게임이다. 충돌을 피한 차량의 운전자는 겁쟁이로 몰려 무시를 당 하기 마련이다. 영어 '치킨' (chicken)에는 겁쟁이라는 뜻도 있는데, 서양에서는 닭을 겁이 많은 동물로 여기기 때문이다. 반면 양쪽 차량이 피하지 않고 충돌할 경우 모두 승자가 되지만 둘다 치명적인 부상이나 사 망에 이를 수밖에 없다.

어찌 보면 치킨게임은 당시 미국 젊은이들이 자신들의 배짱을 과시하

려 하는 치기 어린 놀이였다. 하지만 이 '치킨 게임'은 이후 1950~1970년대 미국 과 소련 사이의 극심한 군비 경쟁을 꼬집 는 말로 사용되면서 국제정치학 용어로 굳어졌다. 또한 지금도 어느 분야에서나 어떤 문제를 둘러싸고 대립하는 상태에서 서로 양보하지 않고 극단적인 경쟁으로 치닫는 상황을 일컬을 때 흔히 사용된다.

내년 대선을 앞둔 우리나라 정치판에서 도 마치 치킨게임처럼 양보 없는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 보수 진영과 진보 진영이

각기 똘똘 뭉쳐 격돌할 채비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각 진영에서 도덕성이나 인 물·정책보다는 '정권 재창출'과 '정권교 체' 가능성만 따지며 상대 진영을 이길 수 있는 인물을 중심으로 여야 지지층이 뭉 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이나 '고발 사주 의혹' 같은 대형 악재가 터져 도, 실언·실책으로 자질 시비가 일어도, 여야 1위 후보들의 지지율이 굳건하다는 점이 이를 반증하고 있다. 이러다 보니 무

> 당층과 중도층이 안착할 제3지대 대안 주자들의 존재감이 미미해지면서 유권자들의 선택지도 그

만큼 좁아지고 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아직까지 대권후보 중 누구를 찍을지 정하지 못한 유권자들 은 적게는 20%에서 많게는 30%까지로 나오고 있다. 대선이 다가올수록 여와 야, 진보와 보수의 극단적인 대립은 더욱 심해질 것으로 보인다. 정치가 국민을 양 진영으로 갈라서는 안 된다. 지금이라도 정치권과 여야 대통령 후보들은 진영 간 치킨게임이 아닌 국민 통합을 우선시해야 할 것이다. /최권일 정치부 부장 cki@

기 고



김재식 광주시 교통건설국장

작년 연말 지구의 기후 위기에 대한 뉴스를 접했는데 짧지만 매우 강렬한 인상이 남아 있다. 내용은 독일의 연 구기관이 운영하는 탄소 시계의 남은 시간이 불과 7년 9 일이라는 것이다. 전 세계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토대로 지구의 기온이 산업혁명 이전보다 1.5도 상승하기까지 남은 시간을 보여 주는 것인데 여기서 1.5도의 의미를 전 문가들은 지구 기후 위기의 마지노선이라 한다.

최근 들어 급격한 기후변화로 홍수·가뭄·폭염·한파 등 재해·재난이 발생하고 있으며, 점차 그 강도와 빈도 가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로 인해 정부는 2020년 12월 관계 부처 합동으로 '2050 탄소중립 추진 전략'을 발표 했다. 이어 국회는 2021년 8월 '탄소중립 기본법'을 의 결하였다. 광주시도 지난해 7월 '광주형 AI-그린 뉴딜 비전 선포식'을 통해 중앙 정부보다 5년 앞선 '2045 탄 소중립·에너지 자립 도시 광주' 실현을 선포하였다.

광주는 여기에 안주하지 않고 올 초부터 에너지·기후 변화 위기, 도시 환경 등 교통 여건을 둘러싼 제반 환경

탄소중립시대, 광주 교통의 미래를 말하다

이 급속히 변화하고 있다는 위기 의식을 갖고 2045 광주 탄소중립 도시 실현과 미래 광주시에 걸맞은 새로운 교 통 패러다임 구축을 서둘렀다. 지난 12일에는 광주교통 정보센터에서 교통 관련 유관 기관・단체 등과 함께 향후 20년간의 광주 교통 미래상 및 핵심 추진 과제를 담은 '2040 광주 교통 미래 비전' 선포식을 개최하였다.

'2040 광주 교통 미래 비전'은 과거 승용차 중심의 도로를 확충하고 교통 소통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에 따 라 과도한 에너지 소모와 함께 미세먼지와 온실가스를 비롯한 오염물질 배출이 증가하는 등의 각종 부작용에 서 탈피하고, 고효율·저비용의 대중교통과 녹색교통 중심으로 정책 방향을 전환하면서, 승용차보다는 사람 과 환경, 안전 중심의 가치를 실현하는 것이다.

특히 이번 비전에는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29% 이 상을 차지하는 수송 분야의 온실가스 감축을 최우선 과 제로 삼고 있다. 이러한 비전과 목표를 실천하기 위해 광 주시는 ▲빠르고 편리한 대중교통 이용 환경 조성 ▲개 인·녹색교통 활성화 ▲사람이 우선되는 안전한 교통 환 경 구축 ▲친환경 교통수단 보급 확대 등 5대 전략, 21개 핵심 과제를 선정하여 앞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무엇보다 수송 분야의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대중・녹 색교통 활성화를 위해 광주시는 오는 2040년까지 대중 교통 체계를 획기적으로 재편해 도시철도 1·2호선을 중심으로 시내버스 마을버스, 자전거, 개인형 이동장 치, 보행 등을 촘촘히 연결하여 승용차를 이용하지 않 아도 주요 생활권을 30분대에 연결하고자 한다.

광주 시내 어디서나 자전거를 타고 이동할 수 있는 자 전거 친화적인 도시를 조성할 목표도 가지고 있다. 자전 거 전용 도로망을 생활권역까지 확대하고 도시철도 1.2 호선과의 연계성 강화에 핵심을 두고 있다. 또한 기존 강 변축과 천변축 자전거 전용도로 및 생활권 자전거도로와 의 네트워크도 강화된다. 편도 3차로 이상의 도로에서 가 장 오른쪽 차로를 시속 20km로 제한하고 자전거, 개인형 이동장치 (PM), 친환경 저속 차량이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도록 전용차로제 도입도 검토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 이 계획대로 이뤄지면 현재 27%에 머물고 있는 대중・녹 색교통 수송 분담률이 2040년에는 50%까지 달성되는 등 향후 광주 교통은 지금보다 휠씬 더 환경친화적이며, 지속 가능하게 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승용차가 자율주행 기술과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등 과 결합해 하나의 문화·생활 공간으로 진화하는 상황 에서 대중·녹색교통 수송 분담률을 높이는 일이 쉽지 만은 않다. 하지만 승용차보다 더 빠르고, 편안한 서비 스를 제공한다면 불가능한 일도 아니다. 무엇보다 인 류가 마주한 기후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꼭 필요한 일 이다. 광주시는 앞으로 매력적인 대중·녹색교통을 만 들기 위해 계속해서 노력할 것이다. 시민 여러분께서 도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탄소중립시대를 열어가 기 위한 노력의 하나로 대중·녹색교통 이용에 적극 동 참해 주길 당부드린다.

光则日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崔宰豪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 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 (지사 지국 (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경 영 지 원 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편 집 부 220-0649 문 화 부 220-0661 ⟨FAX 222-8005⟩ ⟨FA X 222-0195⟩ 기 획 관 리 국 227-9600 업 무 국 220-0551 정 치 부 220-0632 예 향 부 220-0692 경 제 부 220-0663 사 진 부 220-0694 (FAX 222-0195) (FAX 222-0195) 체 육 사 회 부 220-0652 부 220-0621 디 자 인 실 220-0536 서울 지사 02-773-9331 전 남 본 부 220-0642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